

'대장경 사이트' '디지털 실�크로드' 2백여학자 관심

전자불전협 美 국제학술회의

가상공간에서 불교 문화와 교리를 펴는 방법을 논의하는 전자불전협(이하 EBTI, 공동의장 중립 스님)과 전자문화지도협(이하 ECAI, 공동의장 랭카스터 교수)의 국제학술회의가 1월 11일부터 17일까지 미국의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16개국 200여명의 학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료됐다.

아시아 불교권에서 수천 년 간 생산된 문헌과 문화의 디지털화는 방법을 여러 나라의 학자들이 공동 모색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해 1월부터 서비스에 들어간 고려대장경 연구소의 '대장경' 사이트의 정보와 이용 사례 그리고 신라시대의 고승 현상삼님과 실�크로드 관련 유물과 유적을 전자지도 상에 옮기는 중국의 '디지털 실�크로드' 등이 크게 주목 받았다.

이외에도 동국대 전자불전연구회는 <한국불교전자사> 전산화 과정을, 영국국립도서관은 돈황본 축현상을 공개하는 등 60여 개의 연구 실적이 소개됐다.

그런데 당초 예상했던 '이체자' 입력 방법에 대한 논쟁은 없었다. 1년전 대만 대회에서 한국, 일본, 대만은 <고려대장경>과 <신수대장경> 등에 수록된 이체자를 한 이용 환경을 제공하고 CD를 제작해 치열하게 논쟁을 벌인 바 있다.

이에 대해 고려대장경연구소는 "세 나라의 대장경 입력 작업은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체자 논쟁 자체가 무의미하다"며 "이제는 인터넷 상에서 편리한 이용 환경을 제공하고 CD를 배포하는 등 디지털 고려대장경의 수요자를 확대하는 게 급선무"라고 설명했다.

<고려대장경>은 이미 입력 작업이 끝났고, 대만에서 진행중인



○ 지난해 2월 대만에서 열린 EBTI 학술대회 전경. 올해 학술대회에서는 '통합대장경'에 대한 각국의 의견수렴이 활발했다.

<신수대장경> 입력 작업은 지금까지 32권 가량 마무리됐다. 따라서 이제부터 인터넷을 최대한 이용해 세계 불교학계에서의 디지털 고려대장경의 연구 확산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1월 1일 개설된 대장경 사이트의 접속 횟수는 지금까지 약 10만 건. 디지털 장경에 대한 세계 불교학계의 관심을 잘 보여준다.

이번 대회에 대해 고려대장경 연구소장 중립 스님은 "전산화되지 못한 불교 정보는 사장될 수밖에 없는 디지털 세계가 성립 다가가고 있다"며 "각국의 경전 전산화 작업은 막바지에 이른 이상이며, 세계 불교학자들은 이제 문화 건축 비석 탁본 등을 소재로 축적된 디지털 정보를 제공하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고 전하며 연구 방향의 선택 가능성을 내비쳤다. 대만 대회와는 달리

학술단신

종교학회 불교분과 워크숍

한국종교학회 불교분과는 12일, 13일 충북 괴산 다보수련원에서 동계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불교의 근본사상에 대한 공통적 이해 기반 마련을 위해 '업과 연기' '무아와 윤회'에 대해 토론한다. 특히 이번 워크숍은 한사람의 기초발표를 중심으로 하는 논의방법 대신, 참가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놓을 수 있는 분위기와 종합토론 형식으로 진행된다. (02)2260-3128

'고인쇄문화 6집' 발간

한국의 옛 인쇄문화를 학술적으로 규명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고인쇄문화 6집'이 발간됐다. 이번 6집에는 1305년 청주에서 목판으로 간행된 '금강반야바라밀경'에 관한 연구 논문과 운영체 총남대 명예교수의 '한국의 활자문화인쇄', 박문열 청주대 교수의 '인쇄술 기원설과 고려시대 금속활자 인쇄에 관한 연구' 등 고인쇄 관련 논문 5편이 수록돼 있다.

정토학회에 홍윤식교수

한국정토학회는 1월 22일 타워호텔에서 신규회장단 이취임식 및 <정토학 연구 제2집> 출간기념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 홍윤식교수(동국대)가 정토학회 제2대 회장에 취임했으며, 수석부회장은 강동규교수(동아대)가 임명됐다. <정토학 연구 제2집>에는 '21세기 정토사상의 시대적 요청', '한국 정토교의 불교의식과 불교음악', '새천년 정토신행의 포교방향' 등 모두 9편의 논문이 수록됐다.

는 지금까지 학계에 알려지지 않았던 석조약사여래좌상을 비롯, 7점의 석재 유물 등 많은 유적·유물을 새로이 확인하는 계기를 열었다.

이번에 새로이 발견된 유물은 삼룡굴 입구에서 석조약사여래좌상과 석탑 목개석, 삼룡굴 제5사지의 목개석, 지암굴 제4사지의 사리탑 하대석(추정), 용장굴 입구사지의 탑신석, 천룡굴 입구사지의 목개석 등이다.

특히 고위산 정상 아래 천룡굴 절벽 중간 지점에서 새로이 발견한 선방터(禪房址)는 고고·미술사연구에 획기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전에 수록된 유적 중 미륵사지는 1980년 7월 발굴에 들어간 백제 고찰로 동서 세 곳에 강당을 두어 중심축을 형성한 이른바 삼원병치의 가람임이 밝혀졌다. 고대사찰 중 미륵사와 쌍벽을 이루던 신라고찰 황룡사는 고려말 몽고침략 때 불타버렸다가 1976년~1983년 그 터를 전면 발굴함으로써 위용을 드러냈다. 비매출. 문의전화 02-737-9436

록된 방대한 텍스트 자료는 물론 여기에 수록된 사진과 도면을 포함한 모든 자료를 전산화 해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했다.

이번에 수록된 유적 중 미륵사지는 1980년 7월 발굴에 들어간 백제 고찰로 동서 세 곳에 강당을 두어 중심축을 형성한 이른바 삼원병치의 가람임이 밝혀졌다. 고대사찰 중 미륵사와 쌍벽을 이루던 신라고찰 황룡사는 고려말 몽고침략 때 불타버렸다가 1976년~1983년 그 터를 전면 발굴함으로써 위용을 드러냈다. 비매출. 문의전화 02-737-9436

인터넷 사이버 기행

주요 국내불교사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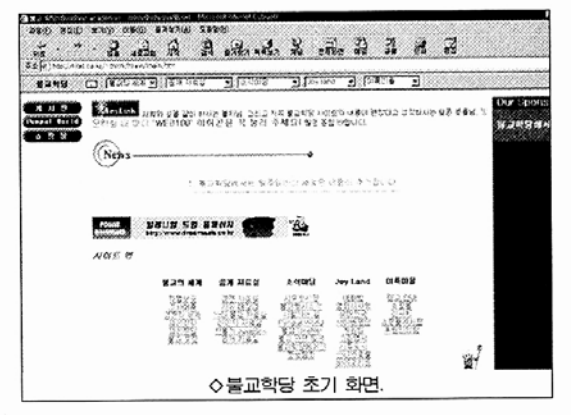
네트워크로 묶여져 있는 사이버 공간에도 현실과 마찬가지로 불교세계가 펼쳐져 있다. '사이버 절'을 지어 놓고 인터넷 세계를 오가는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인터넷은 불교를 알리는 데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포교 수단일 수 있다. 사이버 공간을 찾는 불특정 다수가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인터넷에 뿌리를 내린 불교사이트는 크게 두가지 정도의 경향을 보인다. 불교 색채를 약하게 하고, 내용도 쉽게 풀어 일반인이 부담 없이 다가서게 하는 '대중화'와 교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전문화' 등이다.

대중화-전문화 구분

개인사이트도 수준급

△대중화 : 예불 의식보다 불교 자체를 알리기 위해 스님들의 친근한 '법문'과 '경전 소개' '신행 게시판' 등으로 꾸며져 있다. 예를 들어 사이버템플(www.cybertemple.org)은 부처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일반인이 불교에 쉽게 빠져들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초심자를 위한 기본 교리 과정도 개설해 불교 지식을 체계적으로 쌓도록 하고 있으며, 보다 확실한 전달을 위해 1대 1의 문답식 풀이 과정도 개설해 놓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금강경> <반야심경> <화엄경> <수심경> 등 주요 경전을 게재해 일반인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했다. 불교에 관심만 가지고 있을 뿐 관련 지식은 전혀 갖추지 않았던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재미있고 평이하게 꾸며졌다는 게 특징이다.



◇ 불교학당 초기 화면.

남한산성 폐사지 5곳 본래모습 되찾는다

우리 나라 1,700여 개의 산성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남한산성 내 폐사지 다섯 곳이 본래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 전망이다.

경기도, 경원대, '남한산성을 사랑하는 모임'(남산모) 등은 1월 15일 '남한산성 마스터플랜 중간 보고회'를 발표하고, 남한산성을 '호국'과 '무예'를 중심으로 한 역사공원으로 정비한다는 복원 방안을 제시했다. 이 보고회는 지난해 7월부터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한산성 복원사업' 일환으로 열린 것.

<인조실록>과 <남한지>에 따르면 남한산성 내에는 신라 때 창건된 망월사 옥정사 등과 인조 2년 남한산성 축성 때 벽암각석(1575~1646) 스님이 창건한 국청사 천주사

남산 석탑7기 복원추진

경주문화재연구 창립10년 기념사업

'남산도록' 5월 발간

남산의 석탑들이 복원되고 또 지표조사와 발굴의 손길이 미치지 못했던 깊숙한 골짜기의 문화재들도 이제는 그 빛을 발하게 됐다.

1월 30일 창립 10주년을 맞은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소장 홍성빈)는 폐탑 복원을 위하여 연차 계획을 수립하고 5월에는 <남산문화재 종합도록>을 발간하며 12월에는 <경주문화재연구(가칭)>라는 학술지

미륵사지-황룡사지-안압지 CD롬 발굴보고서 나와

한국 고고학 발굴사에 큰 획을 그었던 정복 익산 미륵사지와 경주 황룡사지 및 안압지 발굴 보고서를 모은 CD롬이 출간됐다.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CD롬 발굴보고서 발간 시리즈 중 두 번째 작품.

이번에 나온 CD롬은 3개 유적 발굴조사보고서에 수

1999년 현대불교신문 합본집 발간

(50부 한정판매)

'94 ~ '99년 디지털 합본집 CD도 함께드립니다.

1999년도 한해 동안 발행된 현대불교신문의 '합본집'이 나왔습니다. 현대불교신문 합본집은 시사불교와 이해하기 쉬운 교리, 큰스님 법문, 한국문화의 증추가 되는 불교문화자료 등이 수록되어 있어 불자들에게는 더 없는 불교의 길잡이가 될 것이며, 사찰의 스님들께는 참다운 수행의 참고서가 될 것입니다.

특히 이번 '99년도 합본집' 제5호를 구입하시는 분들에게는 '94년 창간호부터 1999년 송년호까지 모든 기사와 보도사진이 수록되어 있는 '디지털 합본집 CD-ROM'을 증정합니다.

수록내용 : 1999년도 (201호~251호)
 판형 : 신문원형 그대로
 가격 : 1권 60,000원(발송비 5,000원 별도)
 입금구좌 :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국민 023-25-0007-617 동업 053-01-22741 우체국 010041-0255243
 문의 : 현대불교신문사 고객센터 02)737-8881(대), 02)737-0090(直)

류한평 박사 최면교실

WHO가 공인한 최면요법
 엔들핀 100배 증가되는 놀라운 최면효과!
 잠재능력 일깨워 나를 새롭게!

주요 내용 1. 자기치면, 타인치면 실기수련, 2. 유래강정 활성화
 3. 불안, 공포, 불쾌감 원천소거법, 4. 속효의 기술훈련 앵커법
 5. 불면해소, 숙면법, 6. 연령퇴행, 전생희망법
 7. 성공하는 금연, 다이어트법, 8. 마음의 병 고치는 NLP 최면법

일시/① 오전반 - 개강 : 2월 10일(목) 오전 10시 30분 ~ 12시 30분
 이후 2월 12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 ~ 12시/8회
 ② 저녁반 - 개강 : 2월 10일부터 격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 9시(총 7회)
 참가비 : 39만원

류한평 박사
 대한 심리연구소장, 미국 유니버시티 심리학 박사, 최면과 자유훈련 분야의 국내 최고의 권위자로서 심리치료, 교육, 의료, 수사 등 여러 분야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 정신세계원 (02)747-7033 서울 중로구 원서동 원서빌딩(비원 옆/3호선 안국역)

태극권 명사 박종구 선생의 진가(陳家) 태극권 특별 공개시연회

2월 8일(화) 오후 7시 (참가비 1만원)

태극권 고수(高手)가 펼치는 太極拳의 정수는 어떤 것인가?

박종구 선생 (사단법인 한양문화연구원 원장/태극도단 원장)
 박경에서 열린 중국 민간전통 무술대회에 복경 오비태극권 연합회 추천으로 출전하여 중국 고수들을 능가하여 격파해 세상에 알려졌다. 정통 태극권의 계보를 이어받은 그는 소승을 넘어 이미 한국태극권(태극)을 주도하고 하늘의 비림을 흡수할 수 있는 대승의 경지에 이르러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박종구 선생 특별지도 <진가 태극권> 전문수련반
 기초부터 펼쳐서 2년안에 소승을 이루게 하려는,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태극권전문 수련반입니다. 참가자에게는 태극권 수련으로 사물계 태극을 배우는 일생일대의 결단이 요구됩니다.

일시: 매주 금요일 오후 7시~9시/2월 11일 개강(총 100회 과정)
 회비: 전과료 300만원(1년분 150만원씩 선납)/선착순 접수마감